



갈보리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본향을 향한 신앙의 경주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 2017년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에 성찬 예식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송구영신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성찬위원:은퇴장로, 정장). 청년부 뮤지컬 "10억 3천 6백 80분" 앵콜 공연이 있습니다.
3. 예배 후 12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4시 15분, 사무실).
4. 내년 1월 첫 주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① 금요 새벽기도회 시간을 5시 30분으로 변경
 - ② 좀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예배당 의자를 원형으로 배치
 - ③ 폭넓은 교제를 위해 점심 식사를 선교회 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식사
 - ④ 청년부를 위해 격주로 저녁을 제공. 식사로 청년선교에 동참하실 성도는 신청해주세요.
5.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김광영, 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기도시간입니다.
6. 당회원 부부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8년 1월 5일(금), 12일(금), 18일(목) 오후 7시-10시 장소: 다비다 실 과목:레위기
7.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새해 첫 월례회 주일입니다. 신 임원들은 2018년도 월별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 수요 예배를 3주간(12월 27일, 1월 3일, 10일)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금주의 기도제목

1. 새해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욱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2. 말과 행동에 성숙을 이루는 신앙의 새해가 되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가정과 생업,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AM 11:20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주일 2부예배	주일 PM 1:00	유 아 부	주일 PM 1:00
청년예배	주일 PM 3:15	아 동 부	주일 PM 1:00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청소년부	주일 PM 1:00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19권 52호

2017년 12월 31일 송년주일



2017년 표어 · '다음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신6:4-9)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021-968-388 LTH-07@calvary.org.nz

부목사: 이성철

021-563-634 logosid@hanmail.net

부목사: 박태신

021-077-8382 nuggy308@hanmail.net

해/외/한/인/장/로/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예배 안내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90:1-4
◎ 찬 송	큰 영화로신 주 35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만세 반석 열리니 494장
대 표 기 도	박덕철 장로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11:13-16
찬양대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이태한 목사
찬 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살아계신 주(1,2절)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1월 교회일지

신년주일: 1월 7일(주일)
 금요일저녁기도회: 1월 19일(금요일)
 제직주일: 1월 21일(주일)
 수요헌신예배: 1월 31일(수요일)

1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박병민/정희자
 새신자안내: 이정인/최희숙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기도순서

다음 주일: 박병민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박희진 자매
 1월 9일 수요: 가정예배
 1월 9일 애찬: 가정예배
 1월 14일 주일: 손조훈 집사
 1월 14일 청년부: 김규연 형제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 이예찬 형제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가정예배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목회 칼럼입니다.

다시는 되돌아 오지도, 결코 되돌릴 수도 없는 2017년이 채 12시간도 남지 않은 끝 날입니다. ‘송년’이란 한해를 보낸다는 뜻인데 실상은 내가 보낸다고 보다는 누군가가 흘러가도록 설계 하였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월은 내가 임의로 줄일 수도, 늘릴 수도, 붙잡을 수도,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저 세월이라는 놀이터에 삶이라는 그네나 재물이라는 시소를 타거나 권세 라는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겨우 한나절 정도 놀다가 갈 뿐입니다. 그네나 시소 타기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매순간 스쳐 지나가는 1초 1초가 쌓여 하루가 되고, 한달이 되며, 결국에는 한평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흘러가는 1초 1초가 우리 인생이라는 셈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곧 시간이고 시간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 분의 생명인 우리 시간을 무엇인가와 맞바꾸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있음은 하루의 시간에 해당하는 우리 생명이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인 우리의 생명을 무엇과 바꾸고 있습니까? 바꿀 만한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과 바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5: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사라’,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해라, 같은 일의 분량이라도 빨리 끝내 시간 사용을 극대화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건져 올린다’ 즉 ‘내 것으로 건져 올려라’는 의미입니다. 무르익어 바닷가에 수많은 고기가 있어도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듯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내가 건져 올린 시간만이 나의 시간이요, 그 시간만 내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루라는 똑같은 길이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중에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을 생명으로 건져 올리고 계십니까? 무의미하게 그 모든 시간을 허공 속에 뿌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을 학창시절의 소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풍은 길어 봐야 하루입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소풍이 3분의 2 정도 남은 분, 3분의 1 남은 분, 혹은 4분의 1, 또는 5분의 1도 채 남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3분의 1 남은 소풍 꼭 필요한 보물 잘 찾다가 돌아가서 아름다웠다고 그분께 말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찰라와 수유(須臾)같은 세월에 우리의 시간인 생명을 무엇과 바꾸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생명으로 건져 올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4:6),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1:20)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한해의 끝자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송년 주일에-